

대전 성평등지수는 상위, '안전',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은 하위 대전 성평등지수가 수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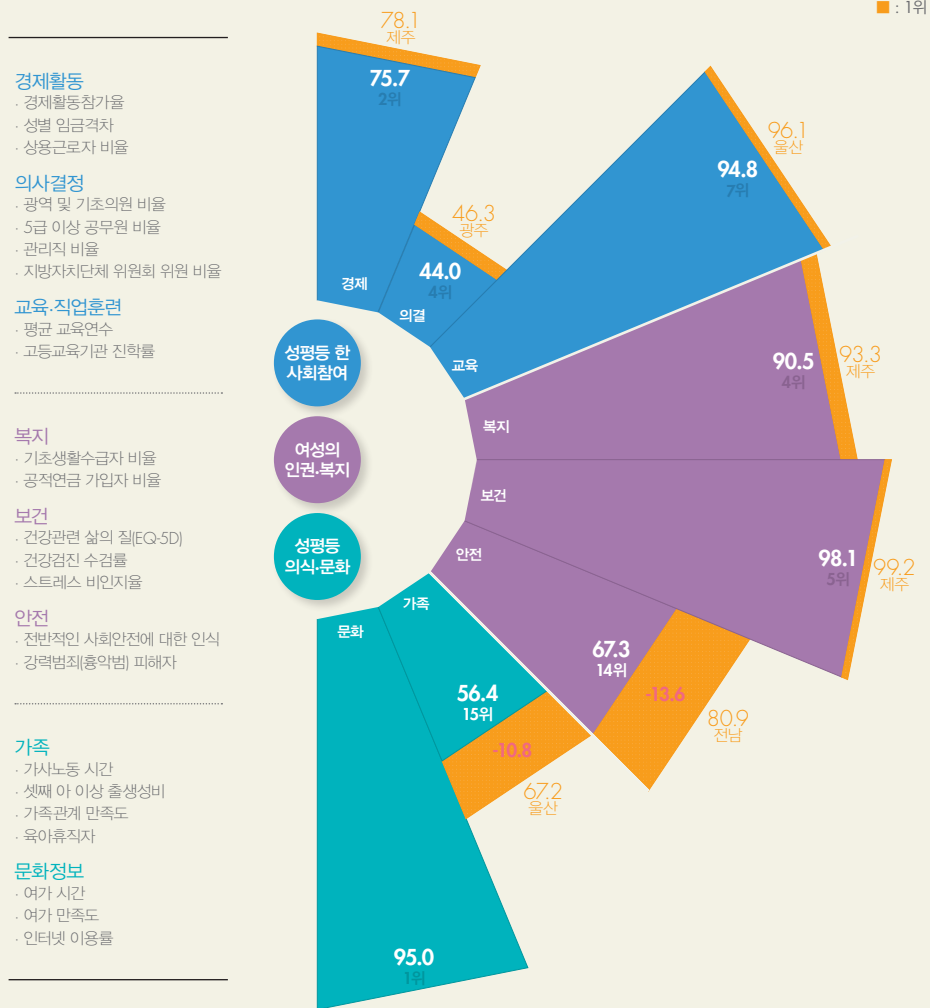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발표한다. 3개 영역, 8개 분야로 나뉘어 측정되는 종합지표로 2018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는 2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대전의 성평등 수준은 어떤지 살펴보자.

'가족' 분야 56.4점, 16개 시·도 중 15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구분하며, 대전은 2011년 이래 줄곧 '상위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대전의 분야별 지역성평등지수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8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16개 시·도 중 중상위권, 2개 분야(안전, 가족)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정보'(95.0점)는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으나, '안전' 분야는 67.3점(16개 시·도 중 14위)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족' 분야(56.4점)는 분야별 1위와의 격차가 10.8점으로 벌어지면서 15위에 머물렀다.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점(완전 성평등=100.0)
■ : 1위 지역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안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20.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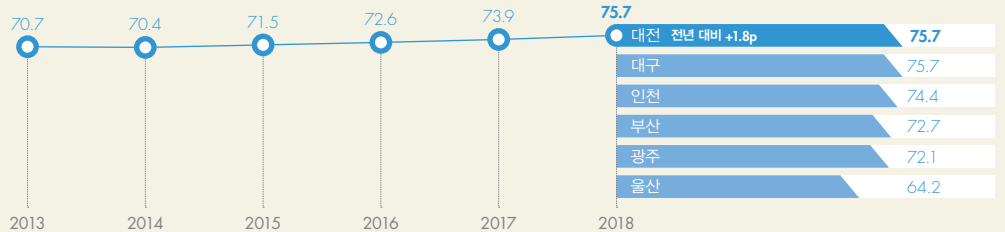
1)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류방식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등급 내 시도순서는 가나다순서임(2018년 기준 상위지역: 대구, 대전, 부산, 제주/중상위지역: 경기, 서울, 울산, 충북/중하위지역: 강원, 광주, 인천, 전북/하위지역: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8개 분야) ① 경제활동, ② 의사결정, ③ 교육· 직업훈련, ④ 복지, ⑤ 보건, ⑥ 안전, ⑦ 가족, ⑧ 문화· 정보
*지표는 성비로 파악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경제활동’·‘의사결정’ 상승,
‘안전’·‘가족’ 하락**

2013년부터 8개 분야별 대전시의 지역성평등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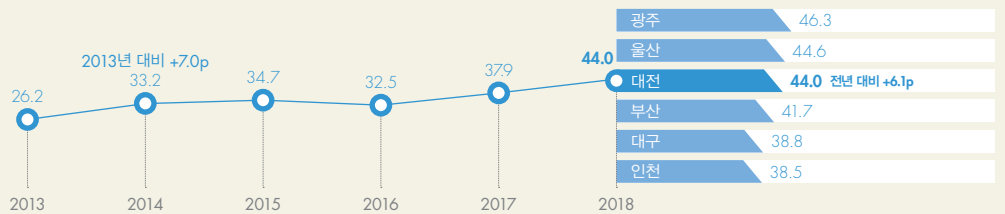
대전 ‘경제활동’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70.4점)에 다소 주춤했으나, 2013년 70.7점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2018년 75.7점으로 전년 대비 1.8점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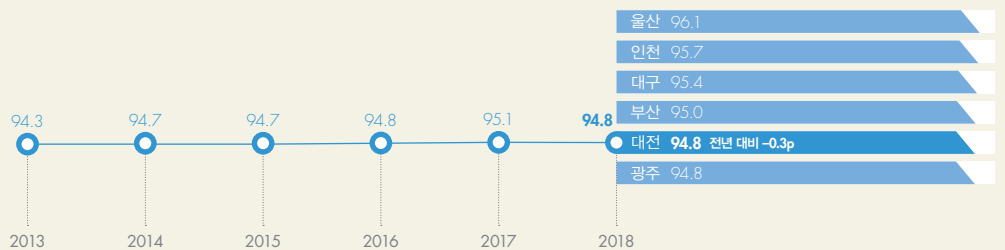
대전 ‘의사결정’ 분야 연도별 추이

‘의사결정’ 분야의 대전 성평등 수준은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4년(33.2점)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2013년 대비 +7.0점)이 있었다. 2018년 기준 44.0점으로 6대 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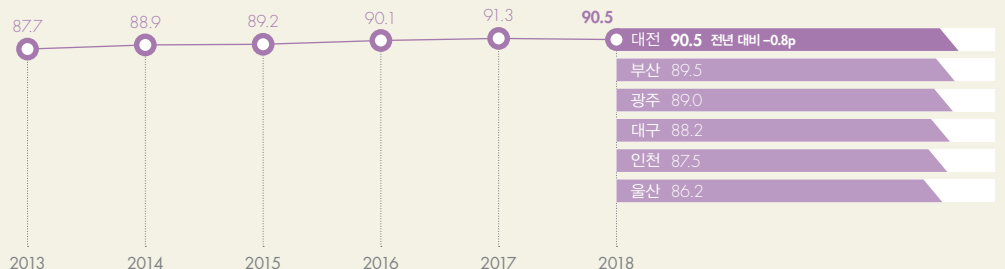
대전 ‘교육·직업훈련’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2013년(94.3점) 이후 2017년까지 해마다 소폭 상승하다 2018년 94.8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하락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대전 ‘복지’ 분야 연도별 추이

‘복지’에서 대전시의 성평등 수준은 2013년 87.7점에서 지속적인 개선 추이를 보이다 2018년 90.5점(전년 대비 -0.8점)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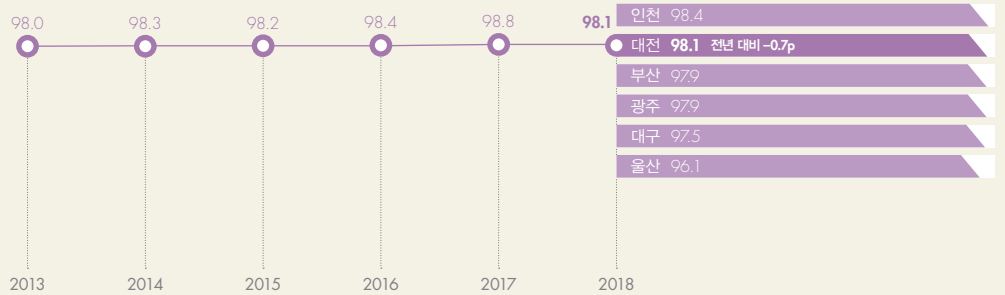
단위: 점(완전 성평등=100.0)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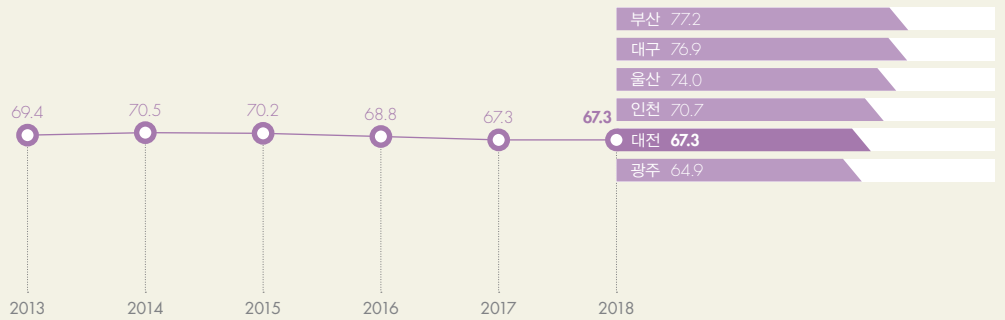
대전 '보건'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보건' 분야에서 꾸준히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며, 2018년 기준 98.1점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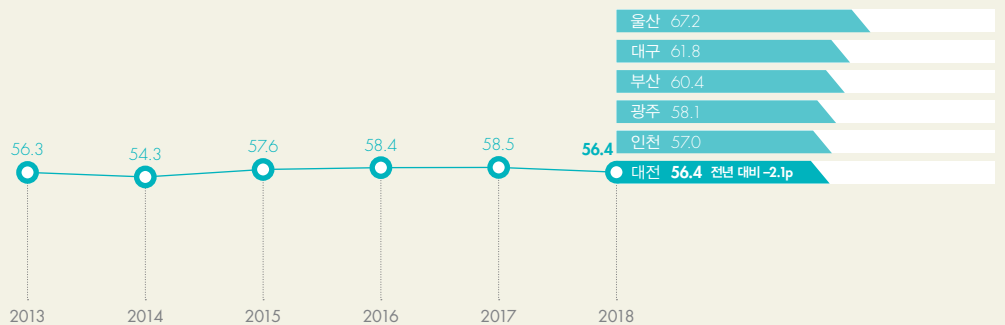
대전 '안전'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안전' 분야 성평등 수준은 하락 양상을 보이면서 2018년(67.3점) 16개 시·도 중 14위, 6개 광역시와 비교해 5위에 그쳤다.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인 부산보다 9.9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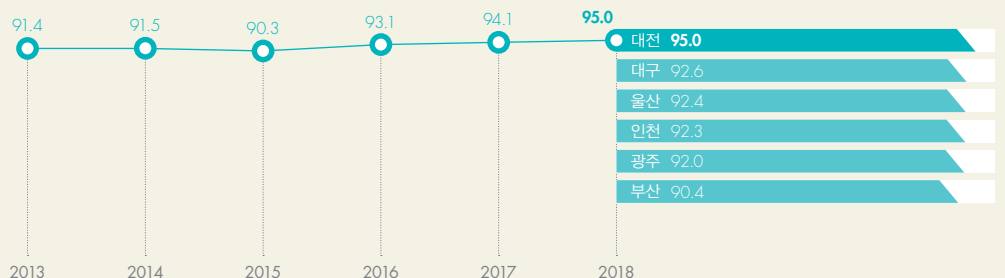
대전 '가족'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의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 추이로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다 2018년 56.4점으로(전년 대비 -2.1점) 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였다.



대전시 '문화·정보' 분야 연도별 추이

대전은 '문화·정보' 분야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2018년 기준 95.0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했으며, 분야 1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완전 성평등=100.0)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전년 대비 23.2명 상승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원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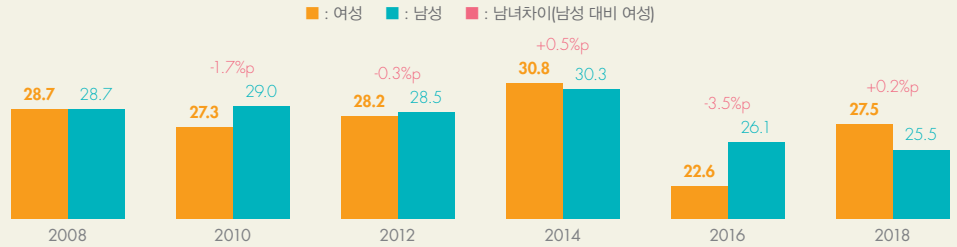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중 '대단히 많이'와 '많이'의 합임

지역성평등지수는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특화된 정책 수립,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하락한 지표에 주목했으며, 성별 추이를 살펴봤다.

대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대전시민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여성은 2018년 27.5%로 남성보다 0.2%p 높았다. 이는 2008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2016년 대비 4.9%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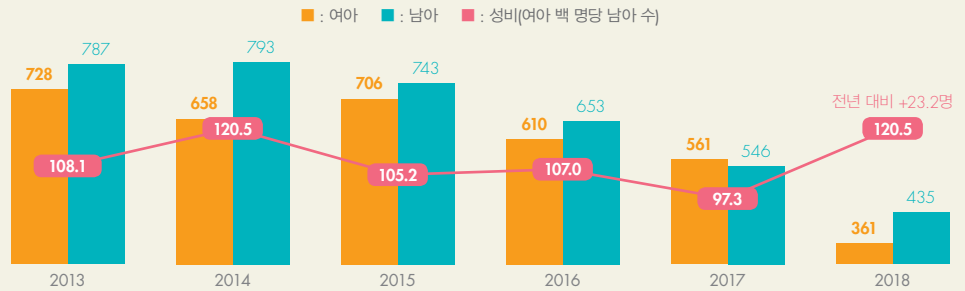
단위: %



대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추이

대전의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여아 백 명당 남아 수 105.2명)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120.5명) 전년 대비 23.2명 상승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악화됐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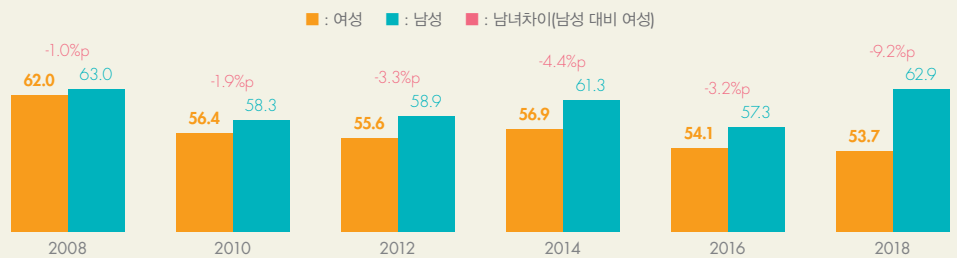


*원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대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가족관계에 대해 2008년 대전 여성 응답자 중 62.0%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남성보다 1.0%p 낮았다. 2018년 여성의 '만족' 비율이 남성 대비 9.2%p 하락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단위: %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분석

*가족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합임

젠더 콜로키움 # 성매매 공간 # 세대적 분절 # 가성비 주의 # 현장 연구

2020년 제1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6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발제 친밀성은 어떻게 상품이 되었는가?: 신/변종 성매매와 '가성비 주의'
발제자 강혜경_중앙대 대학원 사회학과
일시 2020년 2월 19일(수) 10시 2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